

이슈 브리핑

● 이슈 요약

- ◆ 중국, '26년부터 신규 생산 전기 승용차에 대해 에너지 소비효율 규제를 시행하고, 세제 혜택 지급 요건과 연계
- ◆ 중국 기술 기업, 중동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계기로 자율주행·로보택시 등 신산업 분야의 현지 시장 진출 본격화
- ◆ 중국, 전기차 충전 시설이 전년比 52% 급증한 가운데, '27년 충전기 2,800만개 구축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 지속
- ◆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가 대세로 부상함에 따라, 현지 완성차 업계는 전동화 전략을 재조정
- ◆ Toyota, 미국 내 하이브리드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 '26년 1,000만 대 이상의 글로벌 생산량 목표 설정
- ◆ EU, 자동차 차체에 사용할 수 없는 규제 물질 목록에서 탄소섬유를 제외하기로 합의

◆ 중국, 전기 승용차 에너지 소비효율 규제 시행

-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'26.1.1.부터 세계 최초로 배터리 전기 승용차(BEV)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규제를 시행함으로써, 기존 권고안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표준으로 전환한다고 발표
- 당국은 공차 중량과 기술적 특성에 따라 전력 소비량 상한선을 차등 설정하되, 기존 권고안 대비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약 11% 강화*
 - * 이에 동일 배터리 용량 기준 주행거리가 평균 약 7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신규 모델에 적용될 해당 규제는 신에너지차(NEV) 구매세 면제 심사의 필수 요건이 되며, 기준 미충족 모델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 예정

CarNewsChina('25.12.26.) <https://bit.ly/3YUJwwR> Xinhuanet('25.12.26.) <https://bit.ly/3Yhc8jU>

◆ 중국 기술 기업, 중동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맞춰 현지 시장 개척

- 최근 사우디·UAE 등 중동 주요국은 '비전 2030' 등 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디지털 경제·AI 등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
- 이에 맞춰 중국 자율주행 업체 Zelos Tech가 UAE 국영 물류기업과의 합작사 AutoLogiX를 설립하고, WeRide가 아부다비에서 로보택시 운영 허가를 획득하는 등 중국 기술 기업의 중동 현지화가 본격화
- 특히 중국의 자율주행 및 로봇 기업들은 현지 시범 적용 등을 통해 초기 시장을 개척하고 각국 정책에 특화한 협력 모델을 구축 중

21世纪经济报道('25.12.24.) <https://bit.ly/4ax75mJ> 证券时报('25.12.24.) <https://bit.ly/3N3z5E1>

◆ 중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년 대비 52% 확대

-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'25.11월 말 기준 중국 내 전기차 충전기 대수가 총 1,932.2만 기*로 전년 동기比 52% 증가하였다고 발표
 - * (공공) 462.5만 기(전년동기比 +36%), (민간) 1,469.7만 기(+57.8%)
- 한편 중국 정부는 '25.10월 발표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3개년 행동 계획*에서, '27년 말까지 충전기 2,800만 기 구축 및 공공 충전 용량 3억kW 확충 등 관련 인프라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중

国家能源局('25.12.23.) <https://bit.ly/4pZaYpm> Xinhuanet('25.12.23.) <https://bit.ly/49Cs5GH>

◆ 미국 내 하이브리드차 수요 증가에 따라 업계 전동화 전략 변화

- J.D. Power의 '25.12월 미국 자동차 시장 전망에 따르면, 미국의 '25.4분기 신차 판매에서 BEV 비중은 6.2%(전년동기比 -3.6%p)로 감소하고, 하이브리드차(HEV)는 15%(+2.5%p)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미국 소비자들은 EV의 높은 가격을 피해 연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HEV를 선택하고 있으며, 미국 자동차 업계는 향후 HEV 판매량 및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이에 GM·Ford 등 미국 내 주요 완성차사는 HEV 투자 확대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, BEV 투자 축소 등 전동화 전환 계획을 재조정 중

Bloomberg('25.12.29.) <https://bit.ly/3MYX0tN> J.D. Power('25.12.26.) <https://bit.ly/4polC87>

◆ Toyota, '26년 1,000만대 이상의 글로벌 생산 목표 설정

- Toyota의 '25.1~11월 글로벌 생산량은 917만대(전년동기比 +5%)로, '25년 연간 생산량은 1,000만대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- 그 가운데 Toyota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HEV 수요 증가세를 반영해 '26년 글로벌 생산 목표를 1,000만대(Lexus 포함) 이상으로 설정
- 한편 동사는 FY25('25.4월~'26.3월) 기준 관세 영향으로 1.45조엔의 비용 발생을 추정하였으며,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^(장기적)미국 현지 생산 확대 방침을 유지하되 ^(단기적)생산 체제 재편에는 신중한 입장

Nikkei('25.12.25.) <https://bit.ly/4pqmF7y> The Japan News('25.12.27.) <https://bit.ly/3Y0wW8s>

◆ EU, 자동차 자체 대상 탄소섬유 사용 규제안 철회

- 유럽연합(EU)·유럽의회·유럽이사회는 폐차 지침(ELV)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자체에 사용 금지된 물질 목록에서 탄소섬유를 제외하기로 합의
* '25.4월 日 탄소섬유 업계는 인체 유해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철회를 촉구
- 이번 결정은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52%를 점유하는 일본 화학기업의 적극적 로비 활동과 유럽 자동차 업계의 공조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
- 다만 EU는 탄소섬유를 재활용이 어려운 '우려 물질'로 분류해 사용이력 추적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, 해당 개정안은 '26년 중 시행될 예정

Nikkei Asia('25.12.29) <https://bit.ly/45xAJ7P> The Economy('25.12.30.) <https://bit.ly/49bd0LS>